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출제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인문계열)

`



광운대학교 입학처

2014학년도 신입학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 험 번 호		성 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진하게 마킹하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밑줄 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밑줄 친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두 입장이 갖는 차이와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750± 50자)

(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경제 질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질서이므로 국가가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에게 빈곤이란 실패한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생존 경쟁의 장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란 국가와 사적 이익의 중재 기능, 즉 시민사회의 이익을 정치적 기제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자유주의에서 정치의 과제는 사적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지위는 국가와 다른 시민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소극적' 차원으로 한정된다. 그 결과 자유주의에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은 개인들의 사적 이해의 영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에 반해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란 개별적인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연대성을 창출하여 공동의 윤리적 결사체를 만드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모델에서 국가가 '시장사회의 수호자'라면, 공화주의 모델에서 국가란 '윤리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화주의 모델에서 시민은 권리가 아니라 덕(德, virtue)의 측면에서 강조된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반면,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선(the common good)의 이상에 의지한다.

자유주의 모델과 달리 공화주의 모델에서 사회는 이기적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화주의는 공동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덕 있는 시민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민주주의는 투표나 선거와 같은 형식적 절차로 등치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공식적·비공식적 토론의 장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갖는 것이 투표나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권리는 참여와 소통으로 특징지어지는 '적극적' 권리이다.

하지만 공화주의 모델은 과도한 윤리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유주의 모델이 개인주의적·원자론적 편향을 띤다면, 공화주의 모델은 집단주의적·전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 모델에서 시민들은 좋은 삶의 이상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공화주의 모델은 공동의 이해관심과 가치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잘 통합된 공동체를 전제하는데,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사회관계의 기능적 분화, 문화적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화주의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자연권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자연권 사상은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의 주장은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점차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즉 '국가에의 자유'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해 왔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해치는 경우뿐이다.

< 다음 장 계속 >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평등은 '신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했으나 오늘날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를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는 형식적 평등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 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그것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한 대표적 예이다.

(다)

현대 사회는 과거의 '사냥터를 관리하는 국가'를 대신하여 '정원사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냥터를 관리하는 국가는 일부러 사회를 전체적으로 정돈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세세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원사 국가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원에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정원사 국가의 핵심적 기능은 입법자로서, 입법자는 자신의 이성을 작동하여 무엇이 질서 유지에 보탬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 왔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한 질서 아래에서 국가는 다시 사냥터를 관리하는 국가로 회귀하는 경향을 띰으로써 정원사 국가의 역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냥터 관리인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냥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지만, 동물들의 삶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이제 동물들이 국경선을 넘나들며 영지 안팎을 돌아다니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자기 사회를 폐쇄된 정원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국가는 단지 사냥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자원의 재생산과 이동을 관리할 뿐이다.

국가가 점점 더 세심한 정원사의 역할을 단념하고 무덤덤한 사냥터 관리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을 띤다. 점점 더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즉 다국적·초국적 자본들의 독과점적 횡포이다. 세계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조직적 주체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무정부적 상황은 오늘날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생태·환경·평화·불평등·저발전·차별·인권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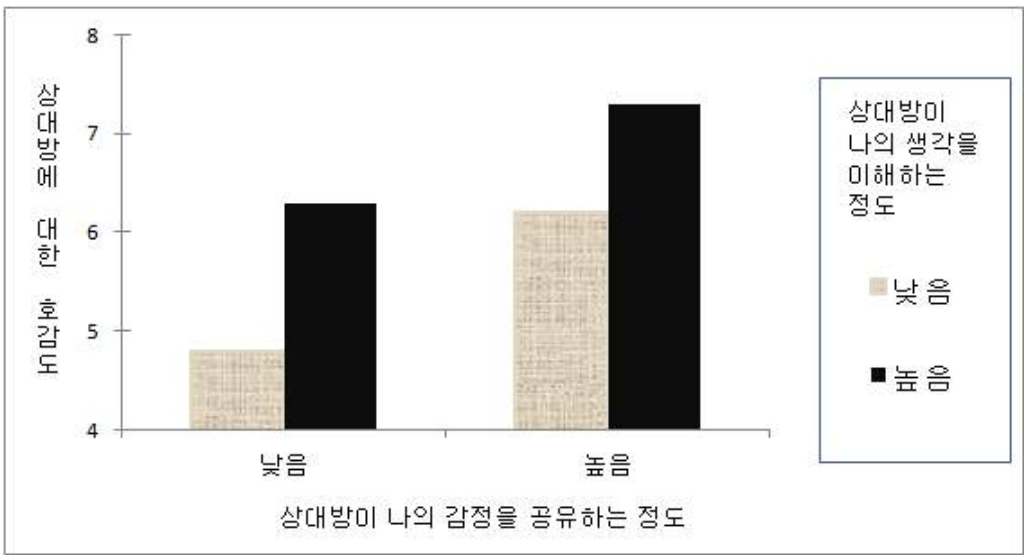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시민들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민국가가 개개인을 운명 공동체의 정치적 주체로 불러내기 위해 그랬듯이, 이제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동조하며 글로벌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필요하다.

< 다음 장 계속 >

[문제 2] 제시문 (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제시문 (나)와 (다)의 밑줄 친 핵심어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의 관계에 대하여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 50자)

(가)

한 연구에서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정도와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호감도를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은 실험 결과 나타난 이 세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에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숫자가 클수록 높다.



<그림> 생각의 이해와 감정의 공유에 따른 호감도

(나)

자공이 물었다. "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 제 삶을 이끌어 갈 만한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네(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慾 勿施於人])." 공자는 이것을 '서(恕)'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한다. '서(恕)'는 같음을 뜻하는 여(如)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한 글자로, 내 마음과 같음을 뜻한다. 즉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서(恕)는 남의 심중을 미루어 생각하여 그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은 너와 나로 구분된다. 나와 너는 서로를 미리 약속된 규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듯이 마음대로 대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차등적인 권력과 문명, 종족과 인종 따위의 통념적 기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서(恕)는 우리에게 쉽게 포섭되지 않는 타자를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인 것이다.

공자는 타자를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동일성의 차원으로 끌어들여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다양성의 층위에서 공존하는 길을 찾고자 했다.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는 서(恕)는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恕)는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장 계속 >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인의 근원이다(무측은지심비인야 측은지심인지단야[無惻隱之心非人也 惻隱之心仁之端也])."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맹자의 사단설(四端說)의 요체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다들 놀라고 두려워하여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선한 본성이 발현한 것이다.

사단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포함되는데, 각각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실천하는 단초가 된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덕목이 인(仁)으로, 인(仁)은 생명의 본성이자 사랑의 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仁)을 실천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측은지심은 사단 가운데 으뜸이자 모체가 되는 것이다. 측은지심은 인간의 네 가지 선한 본성의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마음으로, 백 가지 선한 생각의 원천과 만 가지 선한 행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특정한 유형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특정한 유형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것은 "만약 어떤 존재에게서 A라는 유형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B라는 유형의 심리 상태의 표현"이라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상관관계가 둘 사이에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지 제시된 상관관계의 반쪽, 즉 어떤 사람의 드러난 행동밖에는 없다고 할 때, 특정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 행동적 일반화가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의 내면적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가 타인의 내면세계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한 그의 드러난 어떤 행동으로부터 그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특정한 뉴런 조직인 거울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거울신경세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반응한다. 상대가 웃는 것을 보면 나의 거울신경세포가 반응하여 나 자신에게도 행복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도록 해 준다. 만약 상대방이 썩은 자두를 먹고 역겨움에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그 역겨움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얼굴에 나타난 역겨움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의 경험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호혜적이고 우호적으로 만들어준다. 모방은 우리에게 상대방과 동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질적이었던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게 만든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표정이나 억양, 자세 등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관찰된 타인의 행동 경험을 모방하도록 하고, 그 결과 관찰된 행동과 결부된 새로운 느낌과 생각, 심리 상태를 우리의 내면에 발생시킨다. 이처럼 거울신경세포를 포함한 뇌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뇌과학 연구의 결과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작용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이성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을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 온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끝 >

2014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근거 및 예시답안

1 문 제 1

[출제의도]

- 사회 발전과 글로벌화와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기 위해 [문제1]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정치 이념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평가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에 서술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두 입장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함에 있어 두 입장의 차이점과 한계 및 극복의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같은 현대 정치의 주요 이념에 대한 이해,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표현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③ 글로벌 시대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전 지구적 사회 문제들의 대두와 그 해결책에 대한 모색 등 지구촌의 당면 현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 제시문 (가)는 국가와 정치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차이를 설명한 글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하는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윤리적 공동체의 실현과 공공선의 이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반면, 공화주의 모델에서는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제시문 (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구분하여 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 제시문 (다)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이 '정원사'에서 '사냥터 관리인'으로 전환하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전 지구적 사회 문제들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한계점, 그리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 이 문제는 이상과 같은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가)에서 소개된 두 가지 정치 이념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 (가)의 논지를 정리하여 (나)와 (다)의 논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EBS 수능완성(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112-113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민주주의 강의 2: 사상』, 2007, 137-141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2010, 260-268쪽; 쥐스탱 바이스, 김종명 옮김,『미국식 사회 모델』, 동문선, 2002, 81-84쪽에서 발췌 후 요약 및 윤문.
- 제시문 (나):「자유와 평등에 관하여」,『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주), 2002, 32-33쪽; EBS 수능완성(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128-129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다): 존 어리, 윤여일 옮김,『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휴머니스트, 2012, 313-314쪽에서 발췌 후 요약 및 윤문.

[모범 답안]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정치 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기에 개인주의적·원자론적 편향을 띠는 반면, 공화주의 정치 모델은 윤리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공공선의 이상을 추구하므로 집단주의적·전체론적 한계를 띤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른 생존경쟁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이나 정책적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하는 윤리적 부담이자 정치적 책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는 물론, 생태·환경·평화·불평등·저발전·차별·인권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가 훨씬 더 바람직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자유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지구촌은 무정부적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전 지구적 사회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주의가 글로벌 사회 문제에 대한 필요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지구촌은 다양한 국가 · 민족 · 인종이 공존하며 다양한 사상·문화·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길항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단일한 윤리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답을 도출해내려는 공화주의 정치 모델을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주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사회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797자)**

2 문 제 2

[출제의도]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갑과 을의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대상 성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부재라는 점에서, [문제 2]는 공감의 요인과 의미를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했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감정의 공유라는 공감의 두 가지 요인을 찾아내어 제시문 (나)와 (다)의 키워드인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활용하여 요약,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논지를 근거로 두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의 결과는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공유할 때, 상대방에 대한 나의 호감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제시문 (라)는 공감이 뇌의 거울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한 상호 모방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성적 사고의 산물임과 동시에 감정적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이 문제는 이상과 같은 제시문 (가)의 도표로 제시된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내용과 통합하여 서술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지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한규석, 『사회심리학』, 280-281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나): 고등학교 교과서,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56쪽; 이기석 · 한백우, 『논어』; 신정근,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다): EBS 수능완성(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18쪽; 퇴계 이황, 『성학십도(聖學十圖)』;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측은지심 (惻隱之心)』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라): 폴 처칠랜드, 『물질과 의식』; 데이비드 호우, 『공감의 힘』에서 발췌 후 윤문

[모범 답안]

제시문(가)의 실험 결과는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공유할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두 요인을 제시문 (나)와 (다)에서 찾아 제시하자면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들 수 있다.

역지사지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는 타인에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측은지심이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전자가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서(恕)의 윤리학이라면, 후자는 타자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仁)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상대의 감정에 대한 공유라는 두 가지 요인이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제시문(라)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외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나에게도 즐겁거나 괴로운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모방을 통한 감정의 전이는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공감의 관계로 진전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외면적인 관찰뿐만이 아니라 이를 흉내 내는 과정을 통해 관찰한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감정의 공유는 분리된 별개의 과정이 아니며, 두 가지 과정이 결합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789자)**